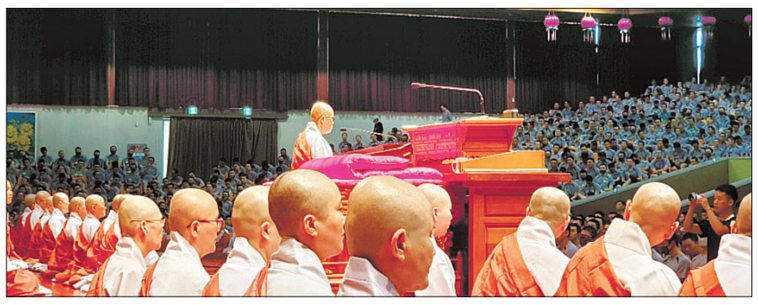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이 수계법회에서 오계를 설하는 모습.

군장병 위로한 비구니스님들의 자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17개 지회 함께 기금 모아
비구니 군승 격려금도 지원

임기 두 달여를 남겨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가 육군훈련소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는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이후 최초로 마련한 군포교 공식 행사다. 이에 전국비구니회 17개 지회가 함께 기금을 모연, 4000여 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에게 푸짐한 간식을 제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이날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우들을 만나고, 당당한 용사로 거듭나는 첫 4주를 훌륭하게 마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당당히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이 연무사에서 부처님과의 첫 인연을 맞음은 앞으로 남은 군생활과 일생일대의 지표가 될 거룩한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호국 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2390만원을 17개 지회 이름으로 기부하고, 비구니 군승 및 민간 성직자로 활동하는 스님들을 위한 격려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A1면에 이어 계속

이후 문종은 선왕의 국상을 끝내고 신미에게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禪敎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碍 慧覺尊者)'라는 법호를 내렸다. 특히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우국이세'라는 칭호는 공적이 분명한 대신과 장상에게 주는 것이어서 더욱 특별했다.

박해진 작가는 "'정사'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완전하게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세종실록〉의 편수관이었던 정인지는 훈민정음과 관련 기록을 편집하고 해례의 서문을 〈세종실록〉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결과적으로 역사에는 훈민정음 해례를 편찬할 때 참여했던 집현전 8학사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미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핵심 협찬자이고, 훈민정음 해례의 간행과 이후 편찬된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 등을 통해 훈민정음 보급에 앞장섰던 선지식"이라며 "〈월인석보〉 협주에 기록된 신미 스님을 비롯한 당대 10학승과 신미의 동생 김수온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 논란 이후를 준비하자

현재 제기되는 논란의 문제점은 단순 창제설의 이견을 넘어 훈민정음서 불교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미 스님의 역할론과 훈민정음 창제에서 불교의 영향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몇몇 기록과 구전을 통해 오던 신미를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과 영화를 통해 현재로 소환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전문 연구자의 몫"이라며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세종과 신미의 뜻을 올바로 기리기 위해서는 불교학자와 국문학자의 협동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에서도 관련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에 많은 자문을 했던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조계종 호법국장)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충분히 역사적 고증과 근거를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불교계와 학계가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창제 직후 발간된 불경 언해본들에 대한 번역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템플스테이 폄훼… MBC 사과하라"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회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MBC 보도에 따른 상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삼귀의를 하는 스님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MBC가 지난 7월 8일 보도한 템플스테이 예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보도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MBC 보도에 따른 상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MBC는 앞선 보도에서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과 조계사 안심당 운영에 템플스테이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조계사 안심당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7월 25일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문화사업단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해당 기사에서 문화사업단이 언급된 내용 및 관련 도표를 삭제하라"고 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회의 참가 스님들은 MBC의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정부 등의 요구로 지원을 받아 시설을 확충·개선해 왔다"면서 "사중 스님

"악의적 보도 반복" 규탄 목소리
언론중재위, 7월 25일 회의에서
예산 보도·도표 삭제 조정 결정
"조정 결정 당연… 공정 운영 최선"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부족한 비용은 사찰이 부담해 손님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별도 예산으로 집행된 조계사와 봉은사의 시설을 문제 삼아 불교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왜곡·호도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 양 매도했으며 현재 템플스테이 시설비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이번 MBC의 보도는 사찰 실정에 대한 몰이해뿐만 아니라 사실도 왜곡해 템플스테이 사업을 폄하했다"면서 "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템플스테이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회의에 참가한 운영 사찰 주지 스님들은 MBC 보도를 규탄하고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단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님들은 일련의 상황 대해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도 결의·발표했다.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시설에 대한 왜곡 보도를 자행한 MBC에게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진실과 사실에 의거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템플스테이 및 불교계에 대한 MBC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악의적 보도행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MBC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스님들은 이어 "템플스테이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2002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만에 하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살피는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국민행복과 힐링, 진정한 휴식이라는 템플스테이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日강제징용 유해봉환 '신중론' 대두

한일 양국불교 논의 소식에 정부·민간 관심

전일본불교회, 한국불교에 제안
"1018위 사찰에 보관 안타까워"
양국 불교계 논의 대표단 구성

日정부 향한 의구심도 제기돼
"책임소재 떠넘기기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제기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는 지난 5월 전일본불교회로부터 '구(舊)민간 징용자 유골 봉환에 관하여'라는 공문을 받았다. 전일본불교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쥰이치로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이 최근까지 부진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양국 불교계 주도로 유골봉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전일본불교회는 "2005년 일본 정부로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유골조사, 정보제공 협력요청을 받았다. 이후 7만여 사찰 협력을 받아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조사가 시작된 후로 14년 이상 유골봉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유골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 따르면 유해에 대한 실지조사는 237회 이뤄졌으며, 한반도 출신으로만 판명된 유골부터 성명과 출신지 등 상세한 사항까지 판명된 유골까지 총 1018위가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

이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6월 제39차 한일불교대회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전일본불교회와 회의를 거쳐 각국 대표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후 한국 측에서는 조계종과 관음종, 삼론종, 원효종 수장을 대표단으로 확정했다. 현재 일본 측은 오는 가을에 첫 회의를 하자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앞서 유해봉환을 추진해온 민간단체들은 양국 불교계의 논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그간 한국정부가 유해봉환에 대한 논의를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배상 판결 등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일본이 불교를 통해 한국으로 최대한 빨리 유해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무연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봉환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면서 "실무적·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정부·민간단체와 함께 유해봉환을 다뤄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윤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유족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태평양강제징용유족회 등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일본의 의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 창구는 유지하되 조금 더 국가적인 사안으로 중요하게 다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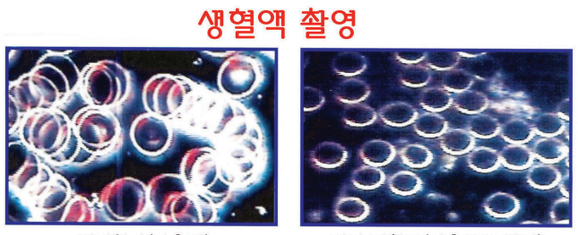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 측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관계자는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유해봉환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책임소재를 불교가 아닌 국가가 질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없다"며 "국내 정서상 일본의 사과 없이 유해를 가져올 순 없다. 우선 한국 불교계가 이 사안을 정부차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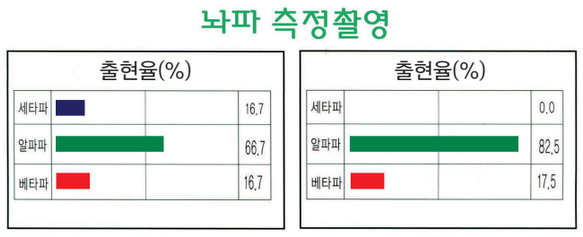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